

**전일동향**

전일 대비 3.80원 상승한 1,497.50원에 마감

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3.80원 상승한 1,497.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30원 상승한 1,501.0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장기화에 따른 유가오름세가 환율 상승을 견인하며, 1,497.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정규장 증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5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01.00	1501.00	1487.00	1497.50	1496.00
엔화	934.95	942.32	934.90	941.50	-	
유로화	1705.12	1725.83	1704.25	1722.7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	-3.79	-9.08
결제환율(수입)	-0.39	-2.51	-6.91	-14.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1,48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97.50) 대비 7.85원 하락한 1,488.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하락 전망한다. 일부 국가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국제 에너지기구(IEA)도 필요시 전략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대화 중임을 시사하는 등 협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강세가 다소 누그러짐에 따라,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율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투자심리 회복은 환율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와 전쟁 장기화 우려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83.67 ~ 1495.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485.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85원 ↓
	■ 美 다우지수 : 46946.41, +387.94p(+0.8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6.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